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는 프리미엄 4도어 쿠페의 진수를 보여주는 역작이다. 특히 CLS 250 블루텍 4매틱 모델은 14.3km/l라는 뛰어난 복합 연비와 4륜 구동의 안정성, 제로백 7.9초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 더 뉴 제너레이션 CLS, 4도어 쿠페의 '완생'

## 벤츠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

친환경엔진·4매틱·4도어 라인업 선택 가능 다이아몬드 그릴·컬트 디자인 우아함 최고 24개 멀티빔 LED라이트 최적의 시야 보장 음성인식·파크 어시스트 등 첨단기능 장착

'빈틈없는 우아함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조화.'

대개 자동차는 실물보다 치밀한 연출을 통해 촬영된 사진이 더 아름답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는 다르다. 눈앞에 펼쳐진 실물의 아우라는 자동차 디자인과 인터리어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혁신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2세대로 돌아온 4도어 쿠페의 트랜드 리더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에 매료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하다.

### ●첨단 테크놀로지 및 결합된 컬트 디자인

자동차의 기술과 디자인이 이토록 한 몸처럼 일체감을 지닐 수 있다는 건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를 보고 깨달았다. 쿠페 디자인의 아름다움, 4도어 세단의 실용성, '벤츠'라는 이름 하나로 통용되는 우월한 품격과 성능이 첨단 테크놀로지와 조우할 때 만들어내는 혁신과 변화는 실로 놀랍다.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는 도로를 뺄아 들일 듯한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그릴을 통해 스포티한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역동적인 사이드라인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속도감이 느껴지고, 높아진 사이드미러 위치는 차의 윤곽을 더욱 도드라지게 해 강한 존재감을 나타낸다.

CLS클래스는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유수의

###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 라인업 및 주요 제원

항목	CLS 250 BleuTEC 4MATIC	CLS 400	CLS 63 AMG 4MATIC	CLS 63 AMG S 4MATIC
길이x 너비x 높이(mm)	4950 x 1880 x 1430	4950 x 1880 x 1415	4970 x 1880 x 1415	4970 x 1880 x 1415
엔진 형식	L/4	V6	V8	V8
배기량(cc)	2143	2996	5461	5461
최고 출력 (hp/rpm)	204/ 3800	333/5250 -6000	557/ 5500	585/ 5500
최대 토크 (kg·m/rpm)	51/1600 -1800	48.9/1600 -4000	73.4/1750 -5250	81.6/1750 -5000
트랜스미션 형식	7G-TRONIC PLUS	7G-TRONIC PLUS	AMG SPEEDSHIFT MCT 7-speed sports	AMG SPEEDSHIFT MCT 7-speed sports
복합연비(km/L)	14.3	10	7.1	7.1
복합 CO <sub>2</sub> 배출량(g/km)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가속력(0-100km/h)	7.9	5.3	3.7	3.6
최고속도(km/h)	236	250	300	300
가격(부가세 포함)	8500만원	9990만원	1억5490만원	1억6990만원



멀티빔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디자인을 지닌 럭셔리카로 선정되고 있다. 자동차 디자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매력 덕분이다.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는 최초로 적용된 멀티빔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24개의 고성능 LED가 각각 통제된다. 굽은 도로나 원형 교차로, 마주 오는 차량을 미리 인식해 각각의 상황에 조명 패턴과 밝기를 조절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다.

### ●효율과 안전의 이상적인 조합 'CLS 250 블루텍 4매틱'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디자인을 지닌 럭셔리카로 선정되고 있다. 자동차 디자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매력 덕분이다.

더 뉴 제너레이션 CLS클래스는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됐다. 그 중 'CLS 250 블루텍 4매틱'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국내 기준 14.3km/l의 높은 연비와 친환경성을 갖춘 최신 블루텍 디젤 엔진이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시사륜구동 시스템인 4매틱을 더해 경제성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실현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2143cc 차세대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은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 에코 스타트·스탑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최고출력은 204마력, 최대토크는 51kg.m에 달한다. 최고속도는 236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는 단 7.9초에 불과하다. 여기에 7G-TRONIC PLUS 변속기를

조합해 파워풀하고 빠른 가속력과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냈다.

아울러 고효율 지능형 소재와 콤팩트한 경량 디자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시사륜구동 시스템 4매틱 기술도 적용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4매틱은 전륜과 후륜에 항시 45:55의 일정한 구동력을 전달하는 최첨단 방식이다. 빗길, 방파길, 눈길과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편의 장치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다. 한국 시장을 위해 개발한 한국어 통행 내비게이션은 실물과 같은 3D 지도를 지원한다. 구 주소 및 신주소 검색이 모두 가능하다. 실제 교통량을 반영한 TPEOS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의 자동차 브랜드 중 최초로 도입한 긴급 경보방송 시스템을 탑재해 쉬운 길안내와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했다.

음성 인식 가능한 링귀트로닉(LINGUATRONIC),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여 주차를 돕는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열쇠를 꺼내지 않고 시동을 걸 수 있는 키레스스-고(KEYLESS-GO), 360도 카메라가 각각 차량위와 주변 상황을 대형 COMAND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 주는 어라운드뷰 기능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첨단 안전장치도 치밀하게 장착되어 있다. 충돌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장시간 또는 장거리 운전자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 어시스트, 메르세데스-벤츠만의 독보적인 안전 기술 프리-세이프(PRE-SAFE®), 사각지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 어댑티브 브레이크 라이트 등 첨단 안전 기술 및 운전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돼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카지노 관리, 왜 산자부가 해?' 강원랜드 노조, 문체부로 주무 부서 이관 요구

"석탄산업 부서에서 카지노를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강원랜드 노조가 주무 부서를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강원랜드 노조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 자원이 고위급인 산자부가 강원랜드를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산자부의 광해관리공단이 지분의 36.27%를 갖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99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폐쇄법'(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산자부를 사업주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랜드의 담당부서는 산자부 석탄산업과다. 그런데 카지노, 호텔, 콘도, 스키, 워터파크 등 강원랜드의 주요 사업 관리와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문체부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산자부와 문체부의 괴짜 싸움에 강원랜드만 새우등이 더지는 결과가 계속 벌어졌다"며 "동남아에서 카지노 관광산업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까지 뛰어들 행국에서 폐광지역을 관광특구로 육성할 진단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kuid

## 아우디, 2015년 신차 7종 이상 출시 예정

아우디코리아는 2015년에 총 7종 이상의 신차를 선보이고, 공식 서비스센터는 올해보다 15곳 증가한 총 40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6, A7과 같은 베스트셀링 모델은 물론 소형 세그먼트 시장 공략을 위한 A3스포트백과 S3세단, 연비 66.7km/l(유법기준)을 자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3스포트백 e-트론, A1, TT 등 다양한 신차를 출시한다. 서비스센터도 대폭 늘린다. 2015년에 15곳을 추가로 신설해 총 40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자동차 수리 공간인 워크베이 또한 2015년말까지 현재 305개(2013년 234개에서 30% 증가)보다 54% 늘어난 469개를 갖출 계획이다.

##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 피날레 콘서트

기아자동차(주)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JKB 컨벤션 홀에서 국내 유명 인디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인 '음악여행'의 피날레 콘서트를 진행했다. 기아차는 2013년부터 예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츠를 통해 기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를 시행해왔다. 올해는 음악여행 테마에 기아 브랜드를 접목시켜 국내 20대들에게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년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를 진행해 젊은이들에게 개성 넘치는 기아만의 브랜드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크리스마스 이벤트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사진)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25일까지 '수정 산타', '산타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산타와 함께 댄스타임', '산타와 함께 포토타임', '펜귄 캐릭터 '핀코&핀키 포토타임' 등 고객참여 이벤트와 크리스마스 산타 밴드 공연을 선보인다. '수정 산타' 이벤트는 하루 4회, '핀코&핀키 포토타임'은 하루 2회, 산타 밴드 공연은 행사 기간 동안 5번 열린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산타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는 산타와 관광객 전원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통해 1명을 선정하고, '산타와 함께 댄스타임'은 캐롤에 맞춰 최고의 율동상 1인을 선정한다. 두 이벤트 모두 당첨자에게 아쿠아리움 캐릭터 선물 증정과 더불어 산타와 함께 하는 기념촬영을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안전·실용성·감성 품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떴다

(2015년형)

현대차는 각종 첨단 사양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인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8일 출시한다. 안전성과 실용성, 감성품질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고급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편의, 안전 대폭 업그레이드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편의, 안전, 디자인 등 다방면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력을 더했다. 차량 전복 시 에어백을 작동시켜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시키는 롤오버 센서(Rollover Sensor)를 새롭게 적용했다. 또 주행 감각을 높이기 위해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휠(MDPS)의 메이저 처리 단위(16bit→32bit)를 개선해 조향 응답성을 향상시켰다. 보다 쾌적한 주행과 섬세한 스티어링 휠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전방 감지카메라를 이용해 앞차와의 충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를 주는 전방충돌경보시스템과 주행 중 사각지대의 차량, 후측방에서 고



소비자 선호 사양을 대폭 보강한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 안전성과 실용성, 감성품질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고급감을 강조했다.

속 접근하는 차량 등을 인지해 경보를 주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 야간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랙베젤을 적용한 고휘도 'HID 헤드램프' 등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차량 뒤쪽에 약 3초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도 기본 적용했다.

### ●범퍼 하단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변경

디자인도 손봤다.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안개등을 적용해 세련미를 더했고, 스마트키 가죽 커버 등을 적용해 감성 품질을 높였다. 차량의 앞뒤 범퍼하단부 디자인을 개선하고, 가로형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안개등을

스티어링 휠 컨트롤·후측방 경보시스템 장착 범퍼·라디에이터 그릴 변경...가격 3450만원

적용해 하이테크 이미지를 완성했다. 또 차량의 내부에 있는 스위치류를 직선형으로 배치해 직관성을 높이고, 공조스위치의 기울기 각도를 최적화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3450만원(세제혜택 후 판매가격)으로 다양한 편의 사양을 추가 적용하고도 내년 개별소비세 인하(6%→5%)를 선반영해 기존 모델보다 10만원 낮은 가격에 출시했다.

한편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품질 자신감을 앞세워 4대 프리미엄 보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 대해 10년간 20만km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1년 75%, 2년 68%, 3년 62%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 30일 이내 하이브리드 불만족 시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주는 차종교환 프로그램,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 신차(동일차종)로 교환해주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